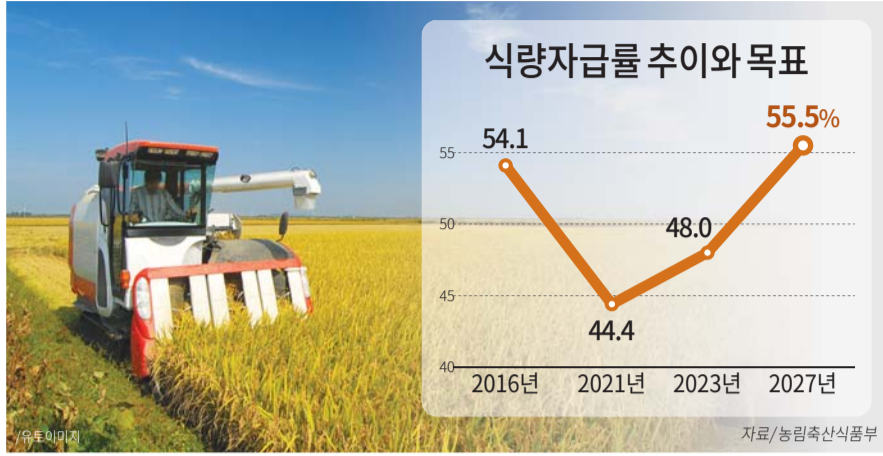


# 논에 가루쌀 등 재배하면 정부지원금... 쌀 수급불안 해소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업인·농업법인 지급 대상  
농가 소득 향상 등 효과 기대



올해 논에서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 쌀 수급불안을 해소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하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

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000㎡ 이상 논(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전년 10월~ 당해년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15일~3월31일까지 진

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해외서 K-푸드 알린 '우수 한식당' 8곳 선정

농식품부-한식진흥원, 21개 항목 평가  
뉴욕 '정식', 파리 '종로삼계탕' 등 지정



파리 '종로 삼계탕' /농식품부

미국과 프랑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당 8곳이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의 '정식'·'아토믹스'·'윤 해운대 갈비', 파리의 '순 그릴 마레'·'종로 삼계탕'·'이도', 도쿄의 '윤가'·'하수오' 등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해외 한식당 분포와 인지도 등을 고려해 뉴욕, 파리, 도쿄 3개 도시를 정해 한식당 신청·접수한 뒤, 한국산 식재료 사용과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우수 한식당을 선정했다.

뉴욕의 '정식'은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2011년 개점해 한

식당 최초로 운전자에게 식당과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미쉐린(Michelin) 가이드 2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윤 해운대 갈비(Yoon Haeundae Galbi)'는 한국 전통 갈비 구이문화를 재현한 전문점으로 소금, 간장, 매실청, 된장 등 요리에 사용하는 주요 제품들을 국산으로 사용한다.

미식의 도시 파리의 '순 그릴 마레(Soon Grill Marais)'는 한국식 구이문화

를 재현해 삼겹살, 돼지갈비 등 다양한 구이 메뉴와 돌솥비빔밥, 파전 등을 제공하며, 떡, 미역, 된장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파리의 '종로 삼계탕(Jongno Samgyetang)'은 닭을 주재료로 전통 한방삼계탕과 함께 한국 지역명이 붙은 동래 파전, 속초 닭강정, 부산 정구지지집 등 친숙한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도쿄의 '윤가(Yunke)'는 영월 잣, 지리산 오디 소금, 보은 대추 등 국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고, 전통 한식의 맛과 멋을 품격있게 제공해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았다.

도쿄의 '하수오(Hasuo)'는 궁중음식을 일본 청년 세대의 취향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깔끔하게 제공한다. 간장, 고추장, 소금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소문으로 특히 젊은 일본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기보, 中 中 中 탄소감축 지원에 5000억 공급

탄소가치평가보증 통해 자금조달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으로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특히,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해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

을 공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재감축기업(시설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의 탄소감축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이 미국 플러턴시장 고광림 특사단장(왼쪽 두 번째), 오세진 경제고문(오른쪽 두 번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 해외진출 韓스타트업 절반은 '본 글로벌'

시작부터 해외서 창업한 회사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절반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지난해 12월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 29개국의 해외 진출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51%가 '본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스타트업 259개사 중 26개사가 신규 창업 스타트업이었다. 한

편 2021년에 조사된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에는 10%에 해당하는 26개사가 지난 한 해 동안 폐업하거나 엑시트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총 6개사가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36.7%가 북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리콘밸리에 있다. 이 외에도 중국(19.7%), 동남아(15.4%), 유럽(10.8%), 일본(6.2%) 등의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진출 목적으

로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해외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고, '소비자 및 고객층 확대'가 36%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연 매출은 100만 달러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1만 달러 이하도 18%로 아령형 분포를 보였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진출방식은 단독 투자가 76.5%로 가장 많았고,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8.1%, 해외지사를 본사로 전환하는 '플립'이 5.0% 순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정부 지원 사업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진출 준비에 소요된 기간으로는 1~2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양성운 기자 ysw@

## aT, 美 플러턴시와 '김치의 날' 추진

지역 우수 특산물 수출 확대 협력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플러턴시에도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이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플러턴(Fullerton)시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의 특사단

으로 방한 중인 고광림 특사단장과 오세진 경제고문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식품 공급망·판매망·물류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K-푸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우수 특산물의 수출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확진 5명 중 1명 재감염...당국 "WHO 비상해제 후 격리의무 검토" /사진 뉴시스
- ▲ 22명 탑승 홍콩 화물선 침몰...14명 구조, 8명 실종

- ▲ 강추위 속 동파·정전 잇따라... 하늘·바닷길 정상화
- ▲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첫 지급



- ▲ '임기만료 8개월째' 서울대병원장, 차기 재공모 절차 시작
- ▲ 오늘 서울에 최대 7cm 눈... 지하철·버스 추가 배차 /사진 뉴시스